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수월 스님(3)

수월, 저것이 무엇인가?

청담, 돌맹이입니다

수월, (괘이로 돌맹이를 획 쳐낸다)

1년 동안 만주 왕정의 토굴에서 수월(水月, 1855~1928) 스님을 모시고 정진하던 청담(淸潭, 1902~1911) 스님이 주먹밥과 짬뽕을 받아두고 수월 스님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러자 수월 스님은 갑자기 청담에게 곁간에 가서 팽이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팽이를 가져오자 수월 스님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마당에 박혀 있는 돌맹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다.

“저게 무엇인가?”

“돌맹이입니다.”

청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월 스님은 팽이를 빼앗아 들더니 돌맹이를 획 쳐내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돌판으로 나갔다.

청담 스님은 수월 스님에게서 받은 이 공안을 일생 동안 화두로 삼아 공부했다고

청담은 돌맹이를 대상으로만 판단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

물물을 풀고 반겼다. 까치, 꿩, 노루, 토끼 같은 산짐승, 날짐승도 모여들어 스님에게 음식을 부리는 듯 했다.

하루는 이런 광경을 본 청담 스님이 짐승들이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 이유를 묻자, 수월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아직 살생심이 남아 있어 그러는 것일세.”

“스님, 어찌하면 살생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자비심을 기르게나.”

“어찌 하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까?”

“자네와 짐승이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이후 청담 스님은 누가 육을 해도 미소를 짓는 자비·인욕(忍辱)공부를 하여 ‘인욕보살’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공안을 수 중정을 역임 하신 수월 스님에게 청담에게

있었던 것은 수월 스님의 감화 때문이었으리라.

위의 공안에서 수월 스님은 청담에게 “돌맹이를 돌맹이라 부르지 말고 일러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청담은 그 질문이 공안인 줄 모르고 무심코 돌맹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수월 스님은 돌맹이를 깨내 던져버린다.

청담은 돌맹이를 마음으로 볼 줄 모르고 대상으로만 본 탓에 돌맹이란 말과 개념에 갇혀버린 셈이다.

수월 스님은 언어와 생각의 틀을 송두리 때 뽑아 던져버리는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써, 먼 길 떠나는 짐승 수좌를 위해 마지막 공부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노스님의 간절한 가르침 덕분에 청담은 도(道)와 덕(德)을 갖춘 당대의 고승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몸과 마음을 낮춰 성불의 길로...

3년간 삼천배정진 이어온 익산 사자암 신도들

9월 2일 새벽, 장마 비를 뚫고 달려간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우뚝 선 미륵산(430.2m)은 미륵사지를 품은 익산의 진산(鎭山)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포장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간이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가파른 돌길 오르막을 20여 분 굽이굽이 돌아 오르면 사자암이 나타난다.

사자암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년)의 불심이 서린 유서 깊은 절. <삼국유사>에는 “백제 무왕과 선화 왕비가 사자사로 행차하던 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삼존불이 출현하여 그 인연으로 미륵사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불자들의 신심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은 3년 동안 매일 초파일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해 온 삼천배 정진법회의 회향날. 3000배를 밥 먹듯이 해온 신도들에게 변덕스런 날씨는 오히려 법회를 받기는 감로수처럼 느껴질 만도 했다.

삼귀의, 보현행원 및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한 기법회회는 ‘삼천배정진회’ 회원 50명을 이끌어 온 대원경 회장에 대한 기법회 수여로부터 시작되었다.

의식 사자암 신도회장은 “삼천배정진회는 기독교세가 유난히 센 익산에서 용맹정진으로 불심의 불꽃을 지켰다”며 “기도비 전액으로 결식아동 5명의 중식을 제공하고 백혈병에 걸린 학생을 돕는 등 보살행의 귀감까지 보였다고” 찬탄했다.

이어 삼천배정진회를 몸신탄면으로 지원한 사자암 주지 항봉 스님은 “삼천배정진을 3년간이나 이어 온 것은 답을 세우고 절을 짓는 불사나 물질적 보시보다 오히려 순수한 공덕을 지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바르고 당당하게 생활 속의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3년간의 삼천배정진을 회향하며 도법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삼천배정진회원들.

이날 법회를 축하하기 위해 하루 전, 강원도 영동에서 탁발순례 중에 급히 참석 한 도법 스님(인도리암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인연 공덕을 찬탄하며 이렇게 법문했다.

“2004년부터 탁발순례를 시작해 얻어 먹고 자면서 2만5000여 리를 걸다 보니 중생살아가 전도몽상(顛倒夢想)의 삶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인생살이가 별게 아님을 알고부터 경전이 새롭게 보이게 시작했어요. 전도몽상을 깨달아 구경 알반으로 가는 길에 연기법의 이치와 중도의 실천이 절실했습니다. 진리와 자기를 섬으로 삼아 정진하다 보면 세상에 법(法)이 눈에 보이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너, 나와 자연, 나와 사회가 함께 잘 사는 동체대비의 깨달음으로 수행과 삶이 일치된 구도의 삶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것도 3년간이나 이어 온 것은 보통 발심으로 어려운 수행이다. 대원경 보살을 따라 절하다가 어느새 절수행의 달인이 된 회원들은 저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보너스로 얻었으니, 절수행의 공덕과 가피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사자암이 익산불교의 중심이 된 것도 삼천배 정진이 큰 힘이 되었다.

삼천배 정진을 뒷받침하고, 올해 3월부터 토요시민선방을 개최하는 등 수행을 권장한 주지스님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익산지역 봉축행사를 부활시키는 등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또한 익산불교신도연합회와 전북포교사단(法)이 눈에 보이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너, 나와 자연, 나와 사회가 함께 잘 사는 동체대비의 깨달음으로 수행과 삶이 일치된 구도의 삶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법회가 익산을 넘어 전북불교 증흥의 서막이 되리라 기대감을 안고 미륵산을 내려왔다. (063)836-8574

익산=김성우 객원기자

인터뷰

삼천배정진회 대원경 회장

10년간 절삼매에 흠뻑 분노 원망 절로 사라져...



“절할 때는 무아지경에서 절만 했어요. 절수행으로 미움, 원망,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져 날마다 행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삼천배정진회 대원경 심명숙(50·사진) 회장은 절수행의 숨은 고수다. 10년 전, 수행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던 중, 100만배 정진을 하던 일심상해의 동료 스님이 매일 500배를 해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일문 동기가. 힘들게 10만배를 회향하니, 이번에는 실상사 화엄학림의 일초 스님이 “<화엄경> 공부와 100만배 중에서 선택하라”고 해서 100만배에 도전했다. 3년 만에 5000배씩 1년 만에 100만배를 회향했고, 그 뒤에는 하루 1만배를 할 정도로 달인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남편(덕산 황금웅)과 함께 예불, 참선, 108배를 같이 해요. 남편과는 맞절로 삼매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절에 자주 가는 것을 싫어하던 남편이 풍중가피를 경험한 후 불교 공부에 흠뻑 빠졌고, 주말에는 부부가 불교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 얼굴이 환해지고, 늘 좋은 일만 생겨서 웃음이 그칠 날이 없다.

처음 절수행을 할 때는 육신이 고달팠지만, 한 고비 넘기니 환희심이 나고 병이 낫는 등 무수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출입도 끊어졌다. 그야말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절삼매에 빠져 산 세월이었다.

삼매를 통해 득력(得力)한 대원경 보살이 사자암에서 3000배를 하자 화엄행, 대덕화 보살 등 도반들이 같이 정진하자고 요청하면서 삼천배정진회가 결성됐다.

대원경 보살이 <108 대장회>에 따라 정성껏 ‘지심구명례’를 불러주기에 보현(7) 보살과 같은 어르신들도 거뜬히 삼천배를 마칠 수 있었다. 여기에 주지스님이 보시금을 후원하는 등 적극 지원해 결식아동 후원, 천마배·하사관학교 대중공양 등 보살행도 병행했다.

대원경 보살은 “이제는 ‘절하는 놈은 누구인가?’ 하고 참구하면서 수행한다”면서, 입장이 두터운 불자들은 절수행을 통해 참회와 인욕, 하심공부를 해낼 것을 권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전통주사는 본래는 **연년** 자료를 보냈던 것이다.

자공이 바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관**

전통문화의 상담 원형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1512-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un@avata21.com

수행계시판

- 고구 스님 특별초청법회**는 공생선원은 9월 16일(일) 오전 10시(30분) 개원 5주년 기념, 조계종 원로위원 고구 스님(금봉암 조실) 특별 초청법회를 연다. (02)900-2448
- ‘선문염송’ 등 강의**는 부산 무심선원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8시30분) <선문염송>,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반~5시) <원오심요>와 <사상>을 강의한다. 매달 1·3 주 일 오후 1시~5시에 수월 경가불교문화원에서 <원오심요>와 <사상>을 강의한다. (051)515-7226
- 아내나사씨 집중수행**-김원권 법사는 9월 13일(목) 오후 5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4박5일간 남양주시 봉인사에서 부처님 호승법인 아내나사씨 중심의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연다. (031)528-5585
- 3박4일 참선정진**-해인사 백련암은 9월 27~30일(매일 낮 7시~11시) 3박4일 참선정진을 실시한다. 또 매일 음력 1월(9월 11일) 오전 10시(30분) 참선법회와 셋째 주 토요일 3번째 철야정진법회를 연다. (055)932-7300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분을 만들고 석분이야말로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집어내 어둠과 고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공경으로 따듯하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이라며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풍문과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의 진물모자에는 어떠한 고품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영운의 백수정을 부처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봉받고 있는 분들은 필름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편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원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백수정 108염주와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 053-02-228720 이진경

제사용 백연화 강신향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추석 명절 제사부터 사용하시면 품격!

제사를 지내는 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에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으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할 모든 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 제주는 무릎 꿇어 향로에 분향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라안 연꽃이탄 뜻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불신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흰연이 지나도 변색 변질 되지 않게 배트린 약수까지 처리 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 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공부리의 백연화 향로에 피어있고 후손의 가정가정마다 만사행통과 건강장수하게 육지대명왕진언을 넣어 가정의 천년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제사대 풍류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98,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 053-02-228720 이진경

명품향로

규격: 높이14cm, 폭18cm, 무게1kg

신통종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불경에 입각해 부와 명예를 얻게 제작된 영험의 지갑!!

불경, 다라니의 근원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말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말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불길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사중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각종비방의 법구와 진언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달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다. 불길의 고통을 해결하는 신묘(神妙)법구에는 “보령”과 “반장”이 있고 진언으로는 “육지대명왕진언”이 있다. 불경을 지계모은 중생은 불리 계달이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력이 세계에 빛날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듬같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역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필연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넣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령”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지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신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